

2022-05-30 (2022-21호)

5월 30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달러 방향 따르는 원화... 더딘 보폭도 맞출까

서울, 5월3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달러 움직임과 연동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45-1,27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긴축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일단락된 이후 등장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달러는 조정 압력을 키웠다. 이에 달러/원도 상승 일변도의 흐름에서 벗어났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진행된 위안화 약세가 상하이 봉쇄 완화 조치 이후 진정세를 보인 점도 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따른 긍정적 영향도 기대할 만하다.

꺼이지 않을 것 같던 미국 물가도 4월 물가 지표를 통해 정점 기대가 더해지는 등 이래저래 강달러 모멘텀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다른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에 대한 시장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달러 조정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전 주말 기준 달러지수는 월간 약 1.2% 하락한 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수준으로 달러 약세분을 좀 더 반영할 여지도 있다.

다만, 역내 수급상 결제수요가 견조하게 하단을 떠받친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달러 추세 변화에 대한 확신도 아직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달러/원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달러의 추가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러 약세에 발맞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입 추세도 확인돼야 한다.

달러 행보를 가늠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나올 국내외 경제지표 결과는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등 5월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비롯해 국내는 4월 산업활동 동향, 5월 수출입 잠정치와 5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관심이다. 한편 연준의 경기 진단을 알 수 있는 베이지북도 발표된다.

또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이어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오는 31일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반기 리뷰 지수 조정일로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30일(일)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 장관회의(주재) (09:00)
-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관리 점검회의(주재) (10:00)
- ⊙ 금융감독원: 2022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 실적(잠정치) (12:00)
- ⊙ 한국은행: 논고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 선택에 미친 영향' (12:00)
- ⊙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시스템리스크 서베이」결과 (12: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가동 (12:00)
- ⊙ 기획재정부: 월별 국세 수입 공개 시기 단축 및 4월 국세 수입 현황 (16:00)

5월31일(화)

-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거시경제금융회의 (08:00)
- ⊙ 통계청: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 주식 배당금 2조4541억원 확정 (11:00)
- ⊙ 한국은행: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5) (12: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4:00)

6월1일(수) |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

- ⊙ 산업부: 5월 수출입 동향 (09:00)

6월2일(목)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BOK 국제컨퍼런스 (09:00)
- ⊙ 한국은행: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주요 내용 (09:00)
-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차관회의 (10:30)
- ⊙ 금융감독원: '22.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 ⊙ 통계청: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15:00)

6월3일(금)

-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 (06: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BOK 국제컨퍼런스 (08:00)
-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관계 차관회의(주재) (08:00)
- ⊙ 통계청: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 (14:00)
-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5:00)
- ⊙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주최 고위급회담 비대면 참여 (15:00)
-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 (17: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5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5월		Indicator	1.98
5월30일	18:00	유로존	경계체감지수	5월	105.1	Index	105.0
5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5월	-21.1	Net balance	-21.1
5월31일	08:30	일본	실업률	4월		Percent	2.6%
5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4월		Percent	0.3%
5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4월		Percent	0.9%
5월31일	10:30	중국	NBS 제조업 PMI	5월		Index (diffusion)	47.4
5월31일	10:30	중국	NBS 서비스업 PMI	5월		Index (diffusion)	41.9
5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5월		Index	33.0
5월31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4월		Percent	-21.2%
5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4월		Percent	6.0%
5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5월		Index	115.17
5월31일	22:00	미국	FHFA 주택가격 MM	3월		Percent	2.1%
5월31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3월		Percent	20.2%
5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5월	57.1	Index	56.4
5월31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5월	104.0	Index	107.3
5월31일	23:30	미국	델러스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5월		Index	1.10
6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5월		USD	1,322.2B
6월1일	08:50	일본	기업 설비투자 YY	1분기		Percent	4.3%
6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	5월		Index (diffusion)	53.2
6월1일	14: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5월		Index (diffusion)	46.0
6월1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	5월	54.4	Index (diffusion)	54.4
6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4월	6.7%	Percent	6.8%
6월1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5월23일 주간		Index	315.5
6월1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5월		Person	247k
6월1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	5월		Index (diffusion)	57.5
6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4월	0.7%	Percent	0.1%

6월1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5월	55.3	Index	55.4
6월1-3일	23:00	미국	자동차 판매	5월		Units	3.000M
6월2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YY	4월	39.3%	Percent	36.8%
6월2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5월		Person	24.286k
6월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3일 주간		Person	210k
6월2일	21:30	미국	노동비용 수정치	1분기		Percent	11.6%
6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4월		Percent	0.4%
6월2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4월		Percent	2.2%
6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	5월		Index (diffusion)	51.7
6월3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5월	56.3	Index (diffusion)	56.3
6월3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4월	0.3%	Percent	-0.4%
6월3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5월	350k	Person	428k
6월3일	21:30	미국	실업률	5월	3.5%	Percent	3.6%
6월3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	5월		Index (diffusion)	53.5
6월3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5월		Index	57.1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30일(월)

⊙ 휴장국가: 미국

6월1일(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주최 컨퍼런스 참석 (오후 8시)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오후 11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컬럼비아대학교 주최 행사서 연설 (2일 0시30분)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멤피스 상공회의소 연설 (2일 오전 2시)
-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2일 오전 3시)

6월2일(목)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실물경제위원회 화상 컨퍼런스서 연설 (3일 오전 2시)
- ⊙ 휴장국가: 영국

6월3일(금)

- ⊙ 라엘 브라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역재투자법(CRA) 논의 참석 (오후 11시30분)
- ⊙ 휴장국가: 영국, 중국, 홍콩, 대만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美 금리 인상, 고용시장까지 영향 줘나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5월 고용 보고서는 지난 3월부터 단행된 금리 75bp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전망이다.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5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35만명 증가해 4월 42만8000명보다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등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고용시장 약화 조짐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인플레이 억제 노력이 "고통"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시장은 6월과 7월 회의에서 금리가 50bp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中 제로 코로나 = 제로 성장?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제 리스크를 인정하고 현 분기 "합리적인"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의 대가는 분명하다.

중국은 광범위한 경제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고, 리 총리는 곧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급등 등 최근 암울한 경제지표가 이어지자 현 분기 중국 경제가 수축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31일과 1일 발표되는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 제조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하이는 6월1일부터 봉쇄 해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서 CSI300지수는 올 들어 20% 하락했고, 위안 가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 ◎ ECB에게 인플레이션은 분명 골칫거리

31일 발표되는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은 7.6%로 4월 7.4%보다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월9일 회의를 갖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정상화 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과 시장은 7월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인플레 지표가 매우 강하면 일부 ECB 관리들의 주장처럼 더 큰 폭의 인상 전망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인플레 압력을 과소평가하다 50bp 인상을 선택한 바 있다. ECB는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개시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2% 목표를 훨씬 웃돌아 이제 움직일 때인지도 모른다.

#### ◎ 5월엔 팔아라?

5월엔 팔고 떠나라는 격언처럼 투자자들이 주식, 특히 나스닥 편입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 부진에 매수자들은 다시 채권으로 몰렸고, 주식시장은 반등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채권지수의 수익률은 5월 10bp 이상 하락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이 모두 5월 중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이 중단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6월에도 캐나다와 미국이 50bp를, 영란은행이 25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발주자인 ECB와 스위스 중앙은행도 긴축 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표현에 유의하자. 일각에서는 연준이 지표 악화시 인상 중단을 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5월의 매도는 6월의 매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 ◎ 달러, 정점 찍었나

20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던 달러 랠리가 꺾였다. 달러지수는 5월 중순 고점에서 3% 하락한 반면 유로는 반등해 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경기하강에 탄력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가 임박했음을 신호해, 뒤쳐져있던 중앙은행들도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한다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정점을 찍었다고 선언할 투자자는 아직 별로 없지만, 대다수는 미국 경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를 주시할 것이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진단) - 물가 안정 강조한 금통위 결과에도 원화 '무덤덤'... "달라진 건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시장 예상대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앞으로도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두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원화는 현재까지 둔감한 반응이다.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25bp 인상했다. 한은이 금리를 연속해서 변경하는 것은 드물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성명에서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방점을 찍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전개 상황을 보면 성장보다는 물가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3.1%에서 4.5%로, 내년은 2.0%에서 2.9%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한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4%로 기존 전망치인 3.0%, 2.5%보다 0.3%p, 0.1%p 각각 낮췄다.

이 총재는 경제 하방 요인이 증가된 상황이라면서도 "(수정된 경제 성장 전망) 이 정도라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물가가 수개월간 5% 이상 오를 상방 위험에 비하면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재차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번 금통위 결과에 환율 반응은 제한됐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물가 상승 억제를 제일 강조했는데 경기 하방 우려도 같이 있었던 터라 환율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다"면서 "스왑 쪽에 영향을 조금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 이후 달러/원 FX 스왑 포인트는 전 구간에 걸쳐 대체로 오름세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금통위 회의 결과로 인한 환율의 본질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환율과 관련해 달러/원 환율 수준이 올라간 데 대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자본 유출 동향을 비롯해 단기외채 등에 대해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화 약세를 촉발했던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및 위안화 약세가 최근 둔화돼 달러/원 상승세가 잠시 꺾인 듯하지만 상승 추세가 유효한 가운데 언제든지 상승 탄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연준의 75bp 배제, 유럽중앙은행의 매파적 분위기, 중국의 봉쇄 완화와 방어적 부



양책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해석 등을 반영하며 달러/원 환율이 1,2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노출된 재료만으로 환율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밑으로 의미 있게 빠질 여건은 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위로 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환율 보고서에서 교역조건 악화, 글로벌 성장 동력 약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등을 바탕으로 원화 '약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원화가 저평가되고 있지만, 올해 중 원화는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말 달러/원 1,300원 전망치를 제시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56.2	0.9%	-5.4%	-8.6%	유로	1.0729	1.6%	-5.6%	-6.9%
100엔 대비	985.3	1.1%	4.8%	+1.8%	엔	127.13	0.6%	-9.5%	-10.3%
유로 대비	1,343.9	0.1%	0.6%	-1.9%	위안	6.6980	-0.1%	-5.1%	+2.7%
위안 대비	187.00	1.8%	0.0%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212.96	6.2%	-8.6%	+18.7%
코스피	2,638.05	0.0%	-11.4%	+3.6%	나스닥	12,131.13	6.8%	-22.5%	+21.4%
코스닥	873.97	-0.7%	-15.5%	+6.8%	S&P500	4,158.24	6.6%	-12.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42.82	0.6%	-13.8%	-4.9%
국고채 3Y	2.947%	-6.4bp	114.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135%	-6.8bp	112.4bp	+67.6bp	미국채 2Y	2.480%	-10.0bp	175.0bp	+61.0bp
국고채10Y	3.212%	-3.3bp	96.2bp	+53.7bp	미국채 10Y	2.740%	-5.0bp	123.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5.07	4.3%	52.5%	+55.8%	한국 5Y	47.0bp	0.6bp	24.9bp	-0.7bp
금(현물)	1,853.73	0.4%	1.4%	-3.6%	일본 5Y	20.2bp	-0.2bp	2.6bp	+2.1bp
TR상품지수	3,815.51	-1.8%	14.3%	+24.6%	중국 5Y	74.2bp	-11.4bp	33.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